廣開土大王碑文의 吏讀的 要素*

李 勇**

요 약

이 글은 廣開土大王碑文을 國語學的인 觀點에서 살펴 從前에 吏讀라고 主張되어 왔던 것들을 中心으로 吏讀的 要素를 찾아보려는 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따라서 旣存의 論議에서 吏讀로 主張되어 왔던 것들을 中心으로 論議를 進行하였다. 이 過程에서 從前에 吏讀나 韓文으로 보았던 要素들에 대해서 漢文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는 結論을 내렸다. 다만 '之'에 대해서는 吏讀의 可能性을 열어 두었다.

具體的인 結果는 다음과 같다. ①'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爲我連葭浮龜'에서 問題가 되었던 '鄒牟王'은 앞뒤의 文脈 어디에 붙여도 다소 語塞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吏讀의 萌芽라고 主張하는 것은 성급하다. ②'我是皇天之子'의 '是'는 繫辭이다. '是'의 繫辭 用法은 이미 秦簡에서부터 보이고, 이 句節에서의 '是' 역시 繫辭로 보아 아무 問題가 없다. ③'王於忽本東岡'의 '於'는 文法史的 側面을 考慮할 때 對格 助詞로 보기 어렵다. ④ '黃龍負昇天'과 關聯한 從來의 主張 중 韓文이라는

* 이 글은 지난 2005년 10월 구결학회 월례강독회에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영만 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 과정 중에 생긴 실수와 착오는 모두 필자의 것임을 밝힌다.

**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직부 글쓰기교실 객원교수.

主張에 대해서 漢文과 韓文의 與否를 떠나서 正確한 判讀이 于先해야 함을 主張했다. ⑤'而倭以辛卯年來渡'를 韓文이라는 主張에 대해서도 이 主張이 核心으로 삼고 있는 '來'에 대한 主張을 批判하고 韓文의 可能性을 間接的으로 否定하였다. ⑥'買人制令守墓之'의 마지막 '之'에 대해서는 漢文과 吏讀의 可能性 둘 다 가지고 있어 어느 한쪽으로 決定하기 어려웠다. 결국 '廣開土大王碑文'에서 마지막 '之'를 除外하고는 吏讀로 볼 만한 要素가 없다는 것이 현재 筆者의 暫定的 結論이다.

*핵심어: 廣開土大王碑文, 吏讀, 漢文, 韓文, 雙勾加墨本

1.

본고에서는 '廣開土大王碑文'에서 이두적 요소를 찾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廣開土大王碑文'에서 吏讀的 要素를 찾으려던 몇몇 논의들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이두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던 몇몇 구절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광개토대왕비문' 전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 셈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말미암는다. 하나는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에서 '광개토대왕비문'에 관심을 기울였고 전문 번역을 했으므로 문장 전체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논의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국어학 분야와 연관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두와 관련된 것이니, 이두와 관련된 부분을 따로 떼어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일 터이기 때문이다.

'광개토대왕비문'에서 이두적 요소를 찾는 것은 이두의 기원을 밝히는 것과 관련을 지니고 있다. '광개토대왕비문'에서 초기 이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고의 논의도 이에서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기존에 이두적 요소라고 보았던 것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한문과의 연관성 하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기존의 논의에서 吏讀的 要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한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이다.

(1)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爲我連葭浮龜(1면 2행)

홍기문(1957):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어머니가 물을 맡은 신령의 딸이요 추모왕이다. 나를 위해서 葭를 련하고 거북을 띄우라

남풍현(2005가): 나는 皇天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河伯의 따님이다. 鄒牟王이다. 나를 위하여 葭를 연하고 거북을 띄워라

김영욱(2004): 나는 皇天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河伯의 女郎인 鄒牟王이다

홍기문(1957: 28)에서는 '鄒牟王' 석자를 아래로 '爲我連葭浮龜'에 붙여 한 구절로 만드나 위로 '母河伯女郎'에 붙여 한 구절로 만드나 모두 문리가 잘 통하지 않으므로, 구두어에서 말하는 그대로 죽 해석해 나가야만 전체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김영욱(2004)나 남풍현(2005)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문리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주장을 필자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풀이해서 이해한다면,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본다. 첫째, 한문으로서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한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화자가 썼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둘째, 한문으

로서 거의 적합하지 않고, 한국어가 은연중에 반영되었기에 생긴 현상이다. 셋째, 한문으로서 완전히 적합하지 않고 한국어를 표기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필자의 졸견으로는 '鄒牟王'을 위나 아래로 어디에 붙여도 문제가 된다면 이는 첫째의 견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문으로 파악해서는 안 될 근거가 보이지는 않는다. 한문으로 어색하다는 것이 한문이 아니라는 것을 담보해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화자가 한국어로 글을 쓸 때, 그가 쓴 한국어가 다소 어색하다고 해서 이것을 한국어가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일 터이다. 설령 양보를 한다 해도 두 번째 견해를 넘어설 수 없을 듯하다. 세 번째 견해를 택하게 되면 왜 하필 이 부분을 포함한 몇몇 부분에서만 한국어를 표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도였다면 '광개토대왕비문' 전체에 걸쳐 한국어를 표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위의 '鄒牟王'을 근거로 이 부분에서 이두의 萌芽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다소 성급한 감이 있다.

김영욱(2004: 69)에서는 이 부분에서 특히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이라는 句節(文章)은 순수한 漢文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이것이 漢字로 表記되었지만 語順은 漢文式이 아니라 韓國語의 語順대로 配列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을 '韓文'이라고 하였다. 특히 '我是皇天之子'에 대해서, '我'와 '是'의 位置가 (典型的인) 漢文과는 반대라는 관점에서 이 句節을 漢文이 아닌 '韓文'이라 하였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碑文'의 '我是皇天之子'를 李白의 '子夜吳歌'에 나오는 '總是玉關情'과 對比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詩句'의 '是'는 '明示素specifier'이고, 그 指示 對象은 뒤에 있는 '玉關情'이다.

② '碑文'의 '是'도 '明示素specifier'인데, 그 指示 對象은 앞에 있는 '我'이다.
③ 즉 兩者는 語順이 반대로 되어 있다. 이런 차이는 '詩句'가 漢文이라면 '碑文'은 '韓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我是皇天之子'의 '是'가 '明示素specifier'로 쓰였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한국어에서는 '明示素specifier'가 한정하는 명사 뒤에 나타나고 중국어에서는 앞에 나타난다면, 여기서의 '是'가 '明示素specifier'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명사를 한정하는 '明示素specifier'는 한국어에서도 명사 앞에 나타난다. '明示素specifier'가 명사 뒤에 나타나는 현상은 한국어에서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1)]

그렇다면 여기서의 '是'는 무엇인가? 이른바 漢文의 '繫辭'로 보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我是皇天之子'는 한문이고 '是'는 계사라고 하면 간단하면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是'를 계사라고 보게 되면, 漢語에서 계사의 용례가 언제부터 확인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明示素specifier'였던 '是'가 문법화를 통해 계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廣開土大王碑文'을 쓸 시기에 '是'의 계사 용법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남규(1997)에서는 '是'가 계사로 쓰인 용례가 '秦簡'[2)]에서 최초로

---

1) 김영욱(2004: 69-70)에서는 '是'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예로 "華嚴文義要訣"의 '問何者是總相/묻노니 무엇이 이 總相인고. 答舍是/答하노니 집이다'(1卷12章)에 나타나는 '舍是'를 들었다. 그러나 '明示素specifier'로 쓰이는 '是'의 예가 상당히 많음(1卷 12章에만 7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명사 뒤에서 한정하는 다른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 경우의 '是'를 繫辭로 본다면 한국어적인 요소가 발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華嚴文義要訣"의 전반적인 양상을 고려할 때, 이 예가 계사일 가능성도 많지 않다.

2) 1975년 中國 湖北省 雲蒙縣 睡虎地와 中國 甘肅省 天水縣 放馬灘에서 발견된 竹簡을 말한다. 이 죽간의 성립 시기는 秦始皇이 중국을 통일하기 20년

발견된다고 보고 있다.

(2) 人毋故鬼功之不已 是是刺鬼 <睡虎地竹簡의 日書>
(사람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 鬼神의 공격이 끊이지 않으며, 이는 바로 刺鬼이다.)
(3) 是是竹彗 人主有死者 <馬王堆漢墓帛書의 彗星圖>[3]
(이것은 竹彗이다. 주인이 죽을 점괘다)

'秦簡'에 나타나는 (2)의 예는 '是'가 두 번 나타나 뒤의 '是'는 繫辭임을 잘 보여준다. 혹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3)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3)은 漢나라 시기의 자료이다. (2)와 (3) 둘 다 繫辭로 보지 않고는 설명이 어렵다.

'是'의 계사화와 관련된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들 시기보다 훨씬 뒤떨어진 '廣開土大王碑文'을 쓸 당시의 화자는 한문의 繫辭 용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是'는 繫辭로 쓴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我是皇天之子'의 '是'를 '明示素specifier'로 보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하겠다.

다음에 제시한 예도 '廣開土大王碑文'과 관련하여 비교적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王於忽本東岡 {黃?}[4]龍{負?}昇天(1면 3행-4행)
홍기문(1957): 왕을 홀본동강에서 황룡이 업고 하늘로 올라갔다
남풍현(2005가): 王을 忽本東岡에서 黃龍이 업고 昇天하였다
정광(2003): 왕을 성밑 동쪽 언덕에서 황룡이 업고 하늘로 올라가다

전인 전국시대 말기로 추정하고 있다.
3) '馬王堆'는 長沙國의 丞相이며 뒤에 軑라는 영토를 받은 대후 利蒼과 그 처자의 무덤이다. 장사국은 한의 마지막 타성왕이다.
4) '?' 표시를 한 것은 판독이 의심스럽다고 보이는 것들이다.

김영욱(2005): …黃龍이 (왕을) 지고서 하늘에 올라갔다

(4)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 하나는 '忽本'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성밑'을 표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이 구문 전체가 이두문 내지는 韓文이고 '於'는 한국어의 대격조사를 표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처음의 문제가 비교적 간단하므로 먼저 논의하기로 한다. 鄭光(2003: 66)에서는 '忽本'에 대하여 김완진·정광·장소원(1997)을 인용하여 이것을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성밑'으로 풀어서, 전체를 "왕을 성밑 동쪽 언덕에서"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高句麗 地名 '-忽'이 景德王 改定 地名에서 대부분 '-城'으로 바뀐 것을 인식한 데서 나온 주장이다. 그러나 鄭光(2003)의 주장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먼저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반적으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卒本'을 '忽本'과 관련시켰는데, 이 견해를 따르자면 '卒本'이 '忽本'의 다른 표기라고 생각한 기존의 논의들은 모두 잘못 파악하고 있는 셈이 된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고주몽이 '卒本'을 도읍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논의에서는 '卒本'과 '忽本'이 같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왔다. 둘째, 1면 3행에 있는 '於沸流谷忽本西 城山上 而建都焉(沸流谷 忽本(의) 서쪽에 가서 山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에서 '忽本'도 '성밑'으로 풀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鄭光(2003)의 주장대로 한다면, '沸流谷 성밑 서쪽에 가서 山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로 해석이 되는데, 방위를 가리킬 때 '沸流谷'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성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구문이 이두문이라는 주장은 洪起文(1957: 27-28)에서 시작되었다. '於'가 漢文의 前置詞(介詞)가 아니라 국어의 助詞(토) '을/를'이 된다고 보아 '王於'를 붙여서 '王을'로 해석하여 전체를 "王을 忽本東

岡에서"라고 해석하였다. 정광(2003: 65-66)에서는 洪起文(1957)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마찬가지로 '於'를 '王'에 붙는 조사(對格)로 보았다. 남풍현(2005가)에서는 '王'을 목적어로 보고 있다.[5]

그러나 '於'를 조사로 보는 것은 이두의 발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어떤 문법형태의 출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문법사에 나타나는 다른 문법형태들과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광(2003: 66)에서는 '於'를 조사로 다루면서 신라시대의 향찰 등 차자표기 자료에는 '於'가 조사로 쓰인 예가 없고, 고려시대의 이두에서 '良於爲'는 '良乙爲'와 같아서 '於=乙'로 읽힌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의미가 있다. 하나의 문법형태가 특정 시기에 그것도 한 번만 나타난다면, 이것을 문법형태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법형태는 일반적으로 고립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먼저 주격조사로 보이는 문법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데, 왜 대격조사 '於'만이 나타날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격조사가 대격조사보다 먼저 나타나거나 적어도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於'를 한문의 한 요소로 보면 해석이 불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6] 그렇다면, 한문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두적 요소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다음으로 다

---

5) 그렇다고 해서 남풍현(2005가)에서 '於'를 '王'에 붙는 대격조사로 본 것은 아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2005년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자리에서 남풍현 선생님께서 분명히 한 바 있다. 덧붙여 '於'처럼 이 당시에 조사를 나타내는 문법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도 언급했다. 조사로 볼 수 있는 문법 형태소는 후대에 들어서나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 이에 대해서는 김영만(2004)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논의에서는 '於'가 (에)가/이르다(至, 到)'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른 대격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법형태들은 어떻게 출현하는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이 밖에도 다른 의문이 줄을 잇지만 여기서 그치기로 한다. '於'를 한 문의 한 요소라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두적인 요소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불필요하게 복잡한 설명을 요하는 쪽보다는 간단하고 명확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하여 '{黃?}龍{負?}昇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영욱(2004: 71)에서는 '黃龍'으로 보고 '黃龍'이 '黃龍負昇天'의 주어라고 파악했다.[7] '履龍'으로 보게 되면 한문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화용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龍은 최고의 통치자를 상징하는데, 이런 龍의 머리를 밟거나 등을 밟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불경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龍의 등을 밟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龍을 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어사 연구에서 자료 접근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국어사 연구에서 자료의 접근은 항상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이 기본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광개토대왕비문'의 연구를 위해서도 비문의 판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비문의 판독을 신중히 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연구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먼저 판독과 관련하여 '履龍'인지 '黃龍'인지가 문제가 된다.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黃龍'보다 '履龍'으로 판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黃龍'으로 판독하는 것은 주의

7) 다른 논의들과 달리 '於'를 대격으로 보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왕을)'로 한 것을 보면 '於'를 대격으로 파악한 것 같지는 않다.

를 요한다.

다음은 '{黃?}龍{負?}昇天'의 탁본들이다.



<그림1> 사카와본



<그림2> 경도대학본

위의 탁본들을 보면 '{黃?}龍{負?}昇天'은 '黃龍負昇天'으로 읽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탁본에 이처럼 명확하게 글씨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이처럼 명확히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된다. '광개토대왕비'가 워낙에 크기도 하거니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여 비문을 새긴 까닭에 비면이 고르지 않아 탁본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명확히 글씨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의 진행을 위해 다음 그림들을 보기로 한다.



<그림3> 사카와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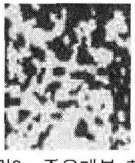
<그림4> 경도대학본



<그림5> 주운태본

위의 그림3, 4, 5는 모두 1면 34자에 해당하는 것들로, 탁본이 다른

것들이다. 먼저 그림3, 4와 비교하여 그림5는 매우 불명확하다. '광개토대왕비문'의 탁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림5가 가장 덜 믿음직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림5가 가장 믿을 수 있는 탁본에 나오는 글자이다. 그림3, 4는 모두 雙勾加墨本인데 이들은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할 자료이다. 이 雙勾加墨本은 종이를 비면에 붙이고 가볍게 두드린 후 글자의 윤곽을 描寫해서 떼어내고, 다시 틈 혹은 글자가 없는 자리에 먹을 칠하는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필획이 분명치 않은 것은 완전한 글자로 만들고 모호한 글자는 명확히 만드는 것이 雙勾加墨本의 특징이다. 그림5를 보면, 이 글자를 '子'자로 판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획으로 보아서는 '子'자와 거리가 멀다. 문맥으로 보아도 '子'는 적당하지 않다. 주어인 鄒牟王이 '生而有聖{德?}'이어야 하지 '生子有聖{德?}'이어서는 부자연스럽다. 그러므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카와본'과 '경도대학본'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자료라고 할 수 있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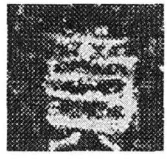
<그림6> 주운태본 黃



<그림7> 주운태본 負



<그림8> 주운태본 黃
(잘 보이는 것)



<그림9> 경도대학본 負

1면 3행 29자

8) 김영욱(2004)에서는 '경도대학본'을 이용하고 있다.

위에서 그림6, 7은 각각 '{黃?}'과 {負?}에 해당하는 주운태의 탁본이다. 먼저 그림6에 보이는 이 글자를 '黃'자로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림8에서 보다시피, 주운태본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黃'자는 '廿'의 아래획이 가로로 더 길게 그어져 있다. 그러나 그림6에서는 아래획이 더 길게 늘여질 것 같지도 않고 심어지는 오른쪽 세로획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과연 세로획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負?}'도 상황이 비슷하다. 그림7에서 보면, '貝'에 가깝지 '負'에 가깝지는 않다. 심어지는 그림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도대학본도 '貝'에 가깝다. 상황이 이렇다면, '黃龍負昇天'을 漢文이 아니라 우리말 어순이 반영된 韓文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글자의 판독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탁본만 해도 수십 종이 있고 판독문 또한 수십 종이 있는 광개토대왕비문 연구에서 탁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판독에 근거한 해석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의 예도 韓文으로 언급된 바 있다.

(5) 顧命世子儒留王以道興治(1면 4행)

김영욱(2004): 顧命世子는 儒留王으로서 道를 일으켜 다스렸다

김영욱(2004: 79)에서는 여기서의 '以'를 道에 붙는 前置詞가 아니라 '儒留王'에 붙는 助詞로 보고 '儒留王以'를 '儒留王으로서'로 해석하고 '顧命世子'만을 주어로 보며 '道興治'는 글자 하나하나를 우리말 순서대로 해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顧命(始祖 鄒牟王의 遺命)을 받은 世子인 儒留王은 道로써 政治를 일으켜 세웠다"로 解釋하여 '以'를 '道'에 붙는 前置詞(介詞)로 보고 興治를 '他動詞+目的語'로 하는 완전한 漢文으로 보았다.

다음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辛卯年 기사이다.

(6) 而倭以辛卯年來渡(1면 9행)
김영욱(2004): 倭로 辛卯年이 되어

김영욱(2004: 77-78)에서는 "…而倭以辛卯年來渡~"를 漢文이 아닌 '韓文'으로 파악했다. '以'는 辛卯年에 붙는 前置詞가 아니라, '倭'에 붙는 韓國語 助詞로 '-로'의 뜻을 가진다고 보고, '倭以'는 '倭로'('副詞語')라고 해석하였다. '來渡~'는 '倭'의 서술 동사가 아니라 '辛卯年'이라는 時間이 '오는(되는)' 것을 나타내는 動詞로 보았다. 즉 漢文이 아닌 '韓文'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而倭以辛卯年來渡~"는 이제까지 '倭'를 주어로, '以辛卯年'을 시간을 나타내는 副詞句[전치사('以')+'辛卯年']로, '來渡~'를 主語인 '倭'의 行動을 나타내는 서술 동사로 보아왔다. 그래서 "…倭는 辛卯年에 來渡하~"로 해석하거나, '以~來'를 '~以來'로 보아 "…倭는 辛卯年 以來로 '渡'하~"로 해석해 왔다. 즉 완전한 漢文으로 보았던 것이다. 반면에 김영욱(2004)에서는 '~以來'가 한문 문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來'를 동사로 해석하고 '되다'로 파악하였다. '동짓날이 왔다' 하면 이것은 '동짓날이 되었다'는 뜻이 되므로, '來'는 '되다'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영욱(2004)에서 '以~來'를 '~以來'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 것 이상으로 이 구절에서의 '來'를 '되다'로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동짓날이 왔다'가 '동짓날이 되었다'로 의미가 파악될 수 있는 것은 현대적 직관이지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적 연구에서 현대적 직관으로 자료를 보게 되면 자료를 왜곡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생긴다. '來'가 (시간이) '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예를 다른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러한 표현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고구려어는 지금의 한국어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 등등. 이와 관련하여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 물

론 '來'가 광개토대왕비문을 쓸 당시에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반증의 증거를 대기도 어렵다. 그러나 논증을 하기도 어렵고 반증을 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선에서 논의를 끝내도록 하겠다.

(7)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4면 9행)
이기문(1981): 판 者(賣者)는 刑罰을 加하고 산 사람(買人)에게는 令을 制定하여 墓를 지키게 한다
김영욱(2004): 판 자는 벌하고 산 자는 묘를 지키도록 명한다
남풍현(2005나): 買入한 사람은 制令으로 守墓한다
김영만(2005): 판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에게 형벌을 가하고 산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령을 제정하여 그에게 묘를 지키게 한다

(7)에 대해서는 李基文(1981)에서 상세히 논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판 者(賣者)는 刑罰을 加하고 산 사람(買人)에게는 令을 制定하여 墓를 지키게 한다"는 내용의 글로서 이 중에 마지막 글자인 '之'가 漢文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기서의 '之'는 吏讀文에서 終結詞로 쓰이는 '之'와 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남풍현(2000, 2005나)에서 이 句는 한문으로서는 불완전하고 국어적인 표현이 가미된 것이라고 보았다. '買人[9] 以(從)制令 守墓之'라야 한문 문법에 맞는다고 보았다. '中原高句麗碑文'의 '跪營之/營에서 꿇어앉았다'의 '之'도 같다고 하였다. 김영욱(2004)도 이러한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김영만(2005)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之'를 한문의 요소로 볼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買人制令守墓之"에서 '之'는 '守'의 목적어가 아니라 '制令守墓'의 목적어이고 '守墓'는 能動形이 아니라 使動形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之'를 목적어로 볼

9) 남풍현(2005나)에는 '者'로 되어 있다.

수 있으므로 '之'를 이두에 쓰이는 종결사와 다르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광개토대왕비문'에 이두적 요소가 있다면 여기서의 '之'가 가장 유력하다. '之'가 대명사가 아니고 문장의 종결형이라면, 아무래도 가까운 시기에 '中原高句麗碑文'의 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 이두에도 예가 보이기 때문이다.[10] 문법 요소의 출현이 단발적이지 않고 다른 자료를 통해 뒷받침을 받는다는 사실이 문법 요소의 유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중시한다면, 여기서의 '之'에서 이두적 요소의 가능성을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

이제까지 '廣開土大王碑文'에서 이두적 요소를 지닌 것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들을 차례로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廣開土大王碑文'에서 한문에서 벗어난 것을 찾지는 못하였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이두적 요소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셈이다. 한문이라고 보아서 문제가 없었으니 '廣開土大王碑文'은 한문으로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려도 무리가 없는 셈이다. 다만 기존에 제기되었던 주장 중에 '之'는 다소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왜 이처럼 그동안 이 비문에 非漢文的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더 나아가 韓文 또는 이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을까? 이는 이러한 자료를 다룰 때는 다음의 세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첫째, 역사적 연구에 있어서는 자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10) 신라 이두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一部 周了 成內之/한 部를 두루 마치어 이루었다<화엄경사경>'를 들 수 있다.

둘째, 차자표기 특히 이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한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복잡성을 띠고 있는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두와 한문의 경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소의 실수나 서투름에 의해서 생긴 결과물도 이두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두란 쓰는 사람이 자기식으로 만들 의도가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金永萬(1980), 「廣開土王碑文의 新硏究(I)」, 『新羅伽耶文化』 11, 영남대학교 新羅伽耶文化硏究所, 23-48.

金永萬(1981), 「增補文獻備考本 廣開土王碑銘에 대하여 -廣開土王碑文의 新硏究(II)-」, 『新羅伽耶文化』 12, 嶺南大學校 新羅伽耶文化硏究所, 145-177.

김영욱(2004), 「漢字·漢文의 韓國的 受容」, 『口訣硏究』 13, 68-79.

김완진 · 정광 · 장소원(1997), 『국어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남풍현(2000), 『吏讀硏究』, 태학사.

남풍현(2005가), 「韓國의 古代吏讀文의 文末助辭 '之'에 대하여」

남풍현(2005나), 「古代韓國의 漢字·漢文의 收容과 借字表記法의 發達」, 『漢文讀法과 아시아의 文字』).

이기문(1981), 「吏讀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52, 65-78.

정 광(2003), 「韓半島에서의 漢字의 受容과 借字表記의 變遷」, 『口訣硏究』 11, 65-66.

최남규(1997), 「계사 「是」의 出現時期와 出現數에 대한 『秦簡』의 重要性, 『중국인문과학』 16, 15-34.

홍기문(1957), 『리두 연구』, 과학원출판사.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직부 글쓰기교실〕
E-mail: leeyonghu@hanmail.net
접수일자: 2006. 07. 12.
게재결정: 2006. 07. 31.

広開土大王碑文の 吏讀的 要素

李　勇

本稿は広開土大王碑文を韓国語学的な観点から眺め、従来吏読であると主張されてきたものを中心に、吏読的要素を探ろうとするところにその目的を置いている。従って従来の論議で吏読であると主張されてきたものを中心に議論を進めた。この過程で、これまで吏読や韓国語文であると見られていた要素について、漢文であると見なしても大きな問題がないという結論を下した。但し、'之'については吏読である可能性を残しておいた。

具体的な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①'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為我連葭浮亀'において問題となっていた'鄒牟王'は、前後の文脈のどこに付けても多少不自然ではあるが、それでもこれをもって吏読の萌芽であると主張するのは早急である。②'我是皇天之子'の'是'は繋辞である。'是'の繋辞の用法はすでに秦簡から見られるものであり、この句節における'是'もやはり繋辞と見なして全く問題がない。③'王於忽本東岡'の'於'は文法史的な側面を考慮すると対格助詞とは見難い。④'黄竜負昇天'と関連した従来の主張のうち韓国語文であるという主張について、漢文か韓国語文かの当否をさておいて、先ず正確な判読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主張した。⑤'而倭以辛卯年来渡'を韓国語文であるとする主張についても、この主張の核心である'来'についての主張を批判し、韓国語文である可能性を間接的に否定した。⑥'買人制令守墓之'の最後の'之'については、漢文と吏読の可能性を共に持っているため、どちらか一方に決め難い。結局、'広開土大王碑文'において、最後の'之'を除

くと吏読と見なし得る要素はないというのが現在の筆者の暫定的な結論である。

キーワード: 広開土大王碑文、吏読、漢文、韓国語文、双勾加墨本